



“맥문동 숲길 등 광주 풍경 담은 시그니처 비누로 경쟁력 갖췄죠”

'성공 신화 도전' 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1〉정유승 오터습 대표

최근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고 창업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 창업가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광주매일신문은 지역의 미래와 비즈니스 환경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지역 청년 창업가들을 재조명하고 이들의 창업 과정과 성공 비법, 포부가 담긴 기획 시리즈를 게재한다.

2021년 동명동에 비누공방 차려...지원사업 다수 선정 지역 특색 살린 상품 개발 매진...‘사회적 기업 지정’ 도전

“소규모 지원 프로젝트부터 도전하 볼 것입니다.” 다 보면 나비효과처럼 사업에 훈풍이 정유승(33·여) 오터습 대표는 청년 창

업가들을 위해 이같이 조언했다.

지난 2021년 광주 동구 동명동에 비누공방 오터습을 차린 정 대표는 광주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두 차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광주 동구의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에 선정된 바 있는 지원사업 분야 ‘베테랑’이다.

지금은 창업 3년차를 맞은 어엿한 청년 사업가지만, 정 대표가 처음부터 사업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한 정 대표는 오터습 운영 전, 광주에서 시각예술 작가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2019년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각종 문화행사가 축소되고 예술가 가 설 무대가 점차 줄어들자 전공을 활용한 창업에 눈을 돌렸다.

어떤 아이템이 좋을 지 고민하던 정

대표는 작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지역 특성을 담은 제품 개발을 고민하다 실용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비누’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오터습’이란 가게 이름의 기원도 남 다르다.

정 대표는 “수달이 체온을 올리기 위해 손으로 코와 귀를 비비는 게 비누로 손과 얼굴을 비비는 사람의 모습과 닮아 가게 이름을 ‘오터습’으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창업 이후 ‘광주’라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품 개발에 매진한 정 대표는 주상절리를 비롯한 무등산의 풍경과 북구 맥문동 숲길을 손바닥만 한 비누에 생생히 담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는 오터습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유승 오터습 대표가 광주 동명동 비누 공방 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 대표는 “광주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싶었고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비누를 사용하다 많아져도 무리는 계속 남아 씻을 때마다 광주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사업이 안정기에 들 수 있었던 배경으로 광주시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꼽았다.

지원사업 덕에 친환경 인증마크와 제품을 납품할 곳도 쉽게 찾는 등 사업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등의 지원사업 선정에 힘입어 정 대표는 ‘사회적 기업 지정’이란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거쳐 기쁘

다”며 “창업을 시작한 후 임대 기간이 끝나면 계속 매장을 옮겨야 했던 게 가장 힘들었는데, 내년부터는 ‘빈집 청년 창업 채움 프로젝트’ 선정으로 마련한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광주시의 지원사업 덕에 첫 걸음마를 내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노력해 사업을 더 크게 일꿔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정 대표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지역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활동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며 “기관의 지원 사업은 영역을 더 빠르고 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니, 작은 지원사업이라도 놓치지 말고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정은솔기자

제25대 광주상의 회장 선거 당락 윤곽

대의원 92명 선출 완료...20일 임시총회서 최종 결정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뽑는 대의원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1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당초 팽팽할 것이라 예상과는 달리 한 쪽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져 최종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날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대의원 92명

(일반의원 80명, 특별의원 12명)을 뽑는 상공의원 선출 선거를 완료했다. 그 결과 한상원 후보(다스코 회장)가 김보근 후보(디케이 회장)보다 더 많은 지지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의원 선거는 제25대 광주상의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을 확보하는 행사로, 선거의 당락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특별의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일반의원에서 한 후보가 김 후보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회장 선거에서 이 흐름이 유지될 지 광주지역 경제

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공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두 후보의 반응은 달랐다.

김보근 후보는 “상공의원 선거는 20일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락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상공의원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광주상의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해 중도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완주의 뜻을 표시했다.

한상원 후보는 “일주일 남은 임시총회까지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선출된 대의원 92명 은 오는 20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1표씩 투표권을 행사해 제25대 광주상의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임재만기자

스마트인재개발원·청암대, 산학협력 체계 구축

AI·빅데이터 전문교육 취업 역량 UP

스마트인재개발원은 13일 “전날 청암대학교와 대학 본부 회의실에서 상호발전과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암대 졸업예정자들의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률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주요 내용은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생지원 및 현장 교육 지원 ▲학생의 취업과 현장실습에 관한 상호 협력·지원 ▲전문인력·교수진의



상호 교류 등이다.

차준섭 스마트인재개발원 이사장은 “지역 기술 산업의 기반을 닦고 우수 기술인재를 육성해 호남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정문화 확산 캠페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 유지하기
- ▶ 환기 뽁뽁이, 커튼으로 틈새 열 손실 줄이기
- ▶ 내복, 무릎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상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호젓해서 좋은 신안지도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3, 8, 13, 18, 23, 28일

※ 신안군내시장 : 송도수산물시장, 신안젓갈타운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1004 신안군** 문의 : 062)650-2099